

Session 12 Seven Parables of the Kingdom (Mt. 13)

제 12강 하나님 나라에 대한 7 가지 비유 (마 13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seven parables about the kingdom of God that Jesus taught by the Sea of Galilee, autumn AD 28 (Mt. 13:1-52; Mk. 4:1-34; Lk. 8:4-18).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AD 28 년 가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7 가지 비유를 보도록 한다 (마 13:1-52; 막 4:1-34; 눅 8:4-18).

- B. The religious leaders in Israel had publicly declared their animosity toward Jesus. Because of their rejection of Him, Jesus began to teach in parables that concealed new truths about the kingdom from those whose hearts were hardened against God.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들이 그분을 반대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진리들을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져버린 이들로부터 감추셨다.

- C. Matthew 13 contains seven parables about the kingdom—the first four were spoken to the crowds and the last three only to the disciples. Jesus spoke in parables both to *reveal and conceal* truth. That is, to make truth easier to understand for those who are receptive to Him and to hide truth from those who harden their hearts against Him.

마태복음 13 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7 가지 비유를 담고 있다. 처음 4 개는 군중들을 향해 가르치셨으며, 나머지 4 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하는 일이었으며, 그분을 대해 마음이 굳어져버린 이들로부터는 진리를 감추는 일이었다.

II. THE DANIEL 2 BACKDROP TO MATTHEW 13

다니엘서 2 장을 배경에 두고 마태복음 13 장 이해하기

- A. Daniel interpreted King Nebuchadnezzar's prophetic dream about a statue that represented four Gentile kingdoms that would arise—Babylon, Persia, Greece, and Rome (Daniel 2).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의 예언적인 꿈, 즉 네 개의 이방 왕국들(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단 2 장)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했다.

³¹"You, O king, were watching; and behold, a great image [Gentile kingdoms] ...³⁴ You watched while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truck the image...³⁵ Then [they] ...were crushed ...so that no trace of them was found. And the stone that struck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⁴⁴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it shall break in pieces...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Dan. 2:31-44)

³¹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이방 제국들]을 보셨나이다 ...³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³⁵ 그 때에 ... 다 부서져 ...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⁴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31-44)

1. The “stone cut without hands” spoke of the kingdom of God being manifested on earth. The stone struck and completely destroyed the statue (the oppressive Gentile kingdoms), and then the little stone became a great mountain that filled the whole earth (Dan. 2:34-35).

“손대지 아니한 돌”은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 돌은 이 신상(억압적인 이방 왕국들)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며, 이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 (단 2:34-35).

2. Daniel 2:34-35 pictured a single cataclysmic event which ushered in God’s kingdom with power—as a stone that struck and shattered the oppressive governments. Thus, Israel was looking for Messiah who would totally remove all the opposing evil kingdoms on the earth.

다니엘 2:34-35 절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의 격변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으며, 한 돌이 나타나 억압적인 정부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압제하는 악한 왕국들을 완전히 제거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 B. John the Baptist spoke on this Daniel 2 theme of the kingdom of God coming to earth (Mt. 3:2-12). The Roman Empire was the fourth kingdom described in Daniel 2, so people assumed that John was proclaiming the time that God would overthrow Rome and establish His kingdom through Israel as He poured out His Spirit and judged the wicked like chaff burned by fire (Mt. 3:11-12). The destruction of Rome, the universal baptism of the Spirit, and the growth of the kingdom to fill the earth did not occur during Jesus’ first coming as Daniel and John the Baptist implied.

세례 요한은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다니엘서 2 장의 주제에 대해 말했다 (마 3:2-12).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2 장의 넷째 나라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으시고 악한 자를 쫓정이 불 태우듯 심판하셔서 (마 3:11-12), 로마 제국을 엮으시고 이스라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니엘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망하고, 전 세계적인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¹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²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¹¹He who is coming after me...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¹²His winnowing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oroughly clean out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barn;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Mt. 3:1-12)

¹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²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 ¹¹ ... 내 뒤에 오시는 이는 ...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¹²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쫓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1-12)

III. JESUS’ PURPOSE FOR SPEAKING IN PARABLES (MT. 13:10-17)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마 13:10-17)

- A. Jesus explained why He taught with parables (13:10-17)—both to reveal *and* to conceal truth. By hiding truth from those who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Him, Jesus showed them grace in saving them from the added guilt of rejecting more truth and emboldening them to act against Him.

여기서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를 설명하신다 (13:10-17). 이는 진리를 감추는 동시에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을 대적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로부터 진리를 감추신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였는데,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진리를 거절하고 더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더하지 않도록 하신 일이다.

¹⁰ *And the disciples...said to Him, "Why do You speak to them in parables?"* ¹¹ *He answered..., "Because it has been given to you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has not been given.* ¹² *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but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from him.* ¹³ *Therefore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seeing they do not see, and hearing they do not hear, nor do they understand. (Mt. 13:10-13)*

¹⁰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¹¹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¹²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¹³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 13:10-13)

- B. **Mysteries of the kingdom:** These parables revealed the mysteries of how the kingdom is manifested in this age. A "mystery" in the Scripture speaks of truths not revealed in the Old Testament and only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Paul defined a mystery as that "which has been hidden but now is revealed" to God's people (Col. 1:26). It is not a truth difficult to understand, but a truth that can be understood only by divine revelation in the New Testament.

천국의 비밀: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어떻게 임하는지의 비밀을 알려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구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진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었던 것이지만 이제 나타난 것"으로 정의했다 (골 1:26). 이는 이 진리가 이해하기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진리가 신약에 있는 하늘의 계시로만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²⁶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den from ages...but now has been revealed to His saints."* (Col. 1:26)

²⁶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 1:26)

- C. **Seeing they do not see:** Many who "saw and heard physically" did not "see and hear spiritually." The understanding that a person "has" or "does not have" is related to their receptivity. Jesus emphasized that truth is not neutral; it hardens or softens those who are exposed to it.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들었지만" "영적으로 보고 들지는 못했다." 여기서 "있는 자" 혹은 "없는 자"는 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지를 말해준다. 예수님은 진리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 진리는 이를 접한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 D. Jesus proclaimed that the kingdom had come, yet it came in an unexpected and hidden form that did not overwhelm the present order of life. It grows only as people respond in faith and obedience. Israel expected a cataclysmic event like what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However, Jesus' message was that, though small, the kingdom promised in Daniel 2 is here in its early stage.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이는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형태로 왔으며 현재의 삶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지도 않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확장되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나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다니엘서 2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 초기 형태로 여기에 임해있다는 것이었다.

- E. Jesus conveyed four aspects of “the mystery,” or four new truths, in the seven parables (Mt. 13). He taught that *in this age* obedience to the kingdom will be voluntary and not enforced; second, that the kingdom will start very small, yet it will eventually fill the whole earth; third, its great value will be hidden to many; and finally, that God will separate the wicked from the righteous by His judgments at the end of the age. The mystery is that *the kingdom would be revealed in stages*.

예수님은 7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비밀”의 4 가지 측면, 즉 4 가지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주신다 (마 13 장). 그분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금 시대에** 드리는 순종은 각자의 자원함과 관계된 것이고 강압적이지 않으며,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며,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가치는 많은 이들에게 감추어질 것이며, 넷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것을 가르치셨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계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 F. The earthly reign of Messiah on the throne of David was clearly revealed by the Old Testament prophets, so it was not a mystery. But in Matthew 13, Jesus introduced the spiritual reign of the kingdom which would increase progressively in the period between His first and second coming. His judgments would be manifested first against Satan’s kingdom, not Rome or human institutions.

메시아께서 이 땅의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부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명확하게 예언된 부분이었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 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통치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는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가르치신다. 그분의 심판은 먼저 사단의 왕국에 대해 나타났으며, 로마나 인간의 체계에 대해 부어지지는 않았다.

- G. Jesus first emphasized spiritual victory empowering His people to enjoy relationship with Him and walk in love, humility, and purity.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승리를 먼저 강조하셨으며, 이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사랑과 겸손,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 H. God will release the greatest revival in the Church in the midst of the greatest, escalating darkness.

하나님께서서는 어둠이 가장 증가했을 때에, 교회에 가장 위대한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다.

²***Behold, the darkness shall cover the earth, and deep darkness the people; but the LORD will arise over you, and His glory will be seen upon you. (Isa. 60:2)***

²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2)**

IV. THE SETTING AND SUMMARY OF THE SEVEN PARABLE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7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상황과 그 요약

- A. The setting in which Jesus taught the parables of the kingdom (Mt. 13:1-3; Mk. 4:1-2; Lk. 8:4):
A great crowd by the Sea of Galilee forced Jesus to speak from a boat (Mk. 3:9; Lk. 5:3).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신 상황 (마 13:1-3; 막 4:1-2; 눅 8:4):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몰려든 큰 무리로 인해 배에서 말씀하셔야 했다 (막 3:9; 눅 5:3).

¹On the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sea. ²And great multitudes were gathered together to Him, so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and the whole multitude stood on the shore. ³Then He spoke many things to them in parables... (Mt. 13:1-3)

¹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²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³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 13:1-3)

- B. Parables one (the four soils) and two (the wheat and the tares) teach that kingdom obedience is not forced. The parable of the sower speaks of very different responses to the message of the kingdom.

첫째 비유(네 종류의 땅)와 둘째 비유(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이 강요되지 않는음을 보여준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한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

- C. Parables three (mustard seed) and four (leaven) teach that the kingdom starts small and grows large. The leavening process highlights the internal and invisible dynamic of its global growth.

셋째 비유(겨자씨)와 넷째 비유(누룩)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가르친다.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채우기까지의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준다.

- D. Parables five (treasure) and six (pearl) teach that the kingdom's value is not seen by most people.

다섯째 비유(보화)와 여섯째 비유(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대부분이 알아보지 못함을 가르친다.

- E. Parable seven (dragnet) teaches that the removal of the wicked will occur at the end of the age. The parable of the tares (parable two) also teaches this.

일곱째 비유(그물)는 악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제거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가라지 비유(둘째 비유)도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

V.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THE FOUR TYPES OF SOIL (MT. 13:3-9, 18-23)**
씨 뿌리는 자 비유와 4 가지 흙 (마 13:3-9, 18-23)

- A.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the seed was spoken to the crowd (Mt.13:3-9; Mk. 4:3-9; Lk. 8:5-8). It described how the crowds responded to His teaching by illustrating the four types of responses people make to the preaching of God's reign. These four types of soil were familiar to farmers who scattered seeds as they walked through their fields. Jesus interpreted this parable in Mt. 13:18-23.

예수님께서서는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의 비유를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마 13:3-9; 막 4:3-9; 눅 8:5-8). 이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이 무리가 보인 반응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에 대한 4 가지 반응이었다. 이 네 종류의 흙은 농부들에게 친숙한 비유였고, 농부들은 밭을 걸어가며 씨를 뿌렸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 13:18-23 절에서 해석해주신다.

³“...Behold, a sower went out to sow...⁴some seed fell by the wayside;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them. ⁵Some fell on stony places...and they immediately sprang up because they had no depth of earth. ⁶But...because they had no root they withered away. ⁷And some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choked them. ⁸But others fell on good ground and yielded a crop: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Mt. 13:1-8)

³ ...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⁴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⁵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⁶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 13:1-8)

1. **Wayside:** Some seeds fell on the path where birds ate them before they germinated (13:4).

길 가: 어떤 씨들은 길 가에 떨어져서 싹이 트기도 전에 새에게 먹힌다 (13:4).

2. **Stony places:** Seed that falls on stony ground may grow quickly in the shallow topsoil, but because it does not have deep roots to obtain the necessary moisture, it dies (13:5-6)

돌밭: 돌 밭에 떨어진 씨는 표면의 얇은 토양에서 빨리 성장하긴 하지만, 필수적인 수분을 얻을만한 깊은 뿌리가 없어서 죽어버린다 (13:5-6).

3. **Thorns:** Seed that falls among the thorns will eventually be choked by the thorn bushes that squeeze out the young plant, robbing it of necessary light and nourishment, so it dies (13:7).

가시 떨기: 가시에 떨어진 씨는 필요한 빛과 양분을 빼앗아가는 가시 떨기에 의해 결국은 숨이 막혀 죽는다 (13:7).

4. **Good ground:** Some seed fell on good ground and produced a crop.

좋은 땅: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 B. In each case, the seed is the same, but the difference is in the receptivity of the soil or the heart response of each person who heard the message of the kingdom. The mystery is that the kingdom is here, but it currently does not have the power Daniel 2 described where it destroys wicked governments.

각각의 경우에 씨앗은 동일했지만 흙이 이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서 차이가 났다. 즉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를 들은 이의 마음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며, 현재는 악한 정부들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다니엘서 2 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VI.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SOWER (MT. 13:18-23)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해석 (마 13:18-23)

- A. Jesus explained the parable of the sower and seed (Mt. 13:18-23; Mk. 4:13-20; Lk. 8:11-15). The seed is the Word of God which fell on four types of soil, speaking of the responses to the Word.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의 비유를 설명해주신다 (마 13:18-23; 막 4:13-20; 눅 8:11-15).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네 종류의 흙에 떨어지는데, 이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의미한다.

¹⁹When anyone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n the wicked one ...snatches away what was sown in his heart. This is he who received seed by the wayside.

²⁰But he who received the seed on stony places, this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²¹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only for a while. For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because of the word, immediately he stumbles. ²²Now he who received seed among the thorns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the cares of this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he becomes unfruitful. ²³But he who received seed on the good ground is h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who indeed bears fruit and produces: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Mt. 13:19-23)

¹⁹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²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²¹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²²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²³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19-23)

1. **Wayside:** Some seeds fell on the hard path where birds ate them quickly (13:4).

길 가: 어떤 씨앗은 딱딱한 길에 떨어져 곧 새에게 먹혀버린다 (13:4).

2. **Stony places:** Seed that fell on stony ground (13:5-6) immediately sprouted with an initial joyful response. This convert fell away, showing his response was not deep or genuine.

돌밭: 돌밭에 떨어진 씨는 초기의 기쁨의 반응으로 즉시 싹을 틔운다 (13:5-6). 이 사람은 곧 떨어져 나가는데, 이는 그가 보여준 반응이 깊지 않았거나 진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Thorns:** Seed that fell among the thorns ultimately were choked out (13:7) by cares or anxiety of this world and the seduction of riches, and produced no fruit.

가시: 가시 가운데 떨어진 씨는 결국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부에 대한 유혹으로 숨이 막혀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13:7).

4. **Good ground:** The seed that fell on good ground produced an extraordinary crop. A tenfold yield was considered good. Genuine believers seek to obey the Word and thus become spiritually **fruitful**, though the measure of fruitfulness varies. Jesus commended all who received the message *regardless* of their measure of productivity.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놀랍게 열매를 맺었다. 열 배의 수확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양이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와 **관계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칭찬하셨다.

- B. Two groups made a profession of faith that later proved superficial. They began well, but failed to continue to follow the Lord. Whether they are saved or lost is not the point emphasized in this parable. What matters most is not a person's profession of faith, but their perseverance in faith.

두 그룹은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것이 피상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시작은 잘 했지만, 주님을 계속 따라가지 못했다. 이 비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떨어져나가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C. Summary:

1. The first type heard the Word of God, but the devil stole it.
2. The second heard the Word of God, but only had a shallow response to it.
3. The third type heard the Word of God, but thorns of worldliness choked the life of that seed.
4. The fourth type heard the Word of God and had varying degrees of fruitfulness.

정리:

1.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단이 이를 훔쳐갔다.
2. 둘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가 깊지 못했다.
3. 셋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일의 가시로 인해 이 씨가 가진 생명이 막혔다.
4. 넷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다.

- D. The next six parables that follow elaborate on this first parable by showing us other pictures of other aspects of the arrival and growth of the kingdom of God.

1.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ares explains hypocrites and heretics in the Church.
2. The third and fourth parables (mustard seed and leaven) show how the kingdom advances.
3. The fifth and sixth (treasure and pearl) show the great value and worthiness of the kingdom.
4. The seventh (dragnet) reinforces the truth of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ares, showing the importance of that truth so that we are neither deceived nor offended.

다음으로 나오는 6 개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다른 면들을 보여주며 첫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준다.

1. 둘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의 위선자와 이단에 대해 설명한다.
2. 셋째, 넷째 비유(겨자씨와 누룩)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여준다.
3.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존귀함을 보여준다.
4. 일곱째 비유(그물)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더욱 설명하면서 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를 통해 미혹되거나 실족되지 않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VII.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HE TARES (MT. 13:24-30)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 13:24-30)

- A. Many wonder why victory is not seen more clearly if the kingdom has arrived already? If Jesus is Messiah, why do so few receive His leadership? In the first parable, the sower used the same seed. Here we see two different kinds of seed being sown by two men—a farmer and his enemy.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더 명확하게 많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적은 수만 그분을 인정하는가? 첫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같은 씨앗을 사용했다. 둘째 비유에서는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씨앗이 서로 다른 사람(농부, 원수)에 의해 뿌려진다.

²⁴“...*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²⁵*but while men slept, his enemy came and sowed tares [weeds] among the wheat...* ²⁶*When the grain...produced a crop, then the tares also appeared.* ²⁷*So the servants of the owner...said to him, ‘Sir, did you not sow good seed in your field? How then does it have tares?’* ²⁸*He said to them, ‘An enemy has done this.’ The servants said to him, ‘Do you want us then to go and gather them up?’* ²⁹*But he said, ‘No, lest while you gather up the tares you also uproot the wheat with them.* ³⁰*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I will say to the reapers, ‘First gather together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Mt. 13:24-30)

²⁴ ...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²⁵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잡초]를 덧뿌리고 갔더니 ²⁶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²⁷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²⁸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²⁹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³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 13:24-30)

- B. This parable addresses the delay of judgment—this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aspects of Jesus’ teaching. God’s people are not to separate the wheat from the tares because this will be delayed until the end-of-the-age harvest. Thus, Jesus did not destroy the wicked Roman oppressors.

이 비유는 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알곡을 가라지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되었고, 이 일은 추수의 마지막 때까지 지연될 일이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악한 압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 C. Jesus Himself gave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rable (13:36-43) teaching that judgment will be delayed until the end of the age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주셨으며 (13:35-43), 심판이 마지막 시대까지 연기될 것을 가르치셨다.

³⁷“...*he who sows the good seed is the Son of Man.* ³⁸*The field is the world, the good seeds are the sons of the kingdom, but the tares are the sons of the wicked one.* ³⁹*The enemy who sowed them is the devil,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and the reapers are the angels...* ⁴¹*The Son of Man will send out His angels, and they will gather out of His kingdom all things that offend, and those who practice lawlessness,* ⁴²*and will cast them into the furnace of fire.* ⁴³*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forth as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Mt. 13:37-43)

³⁷ ...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³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³⁹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⁴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⁴¹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⁴²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⁴³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 13:37-43)

1. The good seed represents believers in Jesus, while the tares are sons of Satan (Jn. 8:44). The devil is the enemy;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age (Joel 3:13). The harvesters are angels (Mt. 24:30-31; 25:31). The field is the world, indicating a global mission beyond Israel.

좋은 씨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말하며, 가라지는 사단의 아들들을 말한다 (요 8:44). 마귀는 원수를 말한다. 추수는 세상 끝,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율 3:13).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말한다 (마 24:30-31; 25:31). 밭은 이 세상이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선교를 말한다.

2. God will permit the righteous and wicked to coexist in this age, but He will separate the wicked and judge them, while gathering the righteous to be rewarded in His presence forever.

하나님께서서는 이 시대 안에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공존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분리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을 모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실 것이다.

3. The problem is in the tares being closely intermingled with the wheat—the wheat could get pulled up with the tares. In this present age, there is a mixture of good and bad people. This can confuse some, especially when the wicked prosper and the righteous suffer.

문제는 가라지가 알곡과 아주 가깝게 섞여 있다는 것이다. 가라지를 분리해내다가는 알곡도 뽑혀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한 이와 악한 이들이 섞여 있다. 우리가 때로 혼란에 빠지는 것은, 특별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번창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이다.

- D. Jesus was not commanding that we avoid confronting sin in the church (Mt. 18:15-20; 1 Cor. 5).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 안의 죄를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다 (마 18:15-20; 고전 5 장).

- E. This parable describes an order of events at His return (Mt. 24:37-41; Lk 17:26-37). Jesus will come with angels to execute the final judgment of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Mt.16:27; 25:31-33).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의 순서를 설명해준다 (마 24:37-41; 눅 17:26-37).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마 16:27; 25:31-32).

- F. The righteous will be rewarded by shining like the sun (Dan. 12:3).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단 12:3).

VIII. THE PARABLES OF THE MUSTARD SEED AND THE LEAVEN (MT. 13:31-33)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마 13:31-32)

- A. Jesus compared the kingdom to a mustard seed and to a lump of yeast—the kingdom will grow from an **insignificant beginning** to great size (mustard seed) with vast influence (leaven). The manifestation of God's reign started with Jesus' small group of uneducated disciples.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덩어리에 비유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며 (겨자씨)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누룩).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교육받지 못한 몇몇의 제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B.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Mt. 13:31-32; Mk. 4:30-32; Lk. 13:18-19) highlights the unforeseen character of kingdom as starting much smaller than most thought and then growing gradually instead of coming in one cataclysmic event. The work of the kingdom can be dismissed.

겨자씨 비유는 (마 13:31-32; 막 4:30-32; 눅 13:18-19)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의 생각처럼 급진적으로 오지 않고, 보이지 않게 훨씬 작게 시작되며 그 다음에 천천히 자라남을 알려준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³¹“...*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sowed in his field, ³²which indeed is the least of all the seeds; but when it is grown it is greater than the herbs and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nest in its branches.” (Mt. 13:31-32)*

³¹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³²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 C. The parable of the leaven or yeast hidden in meal [bread dough] (Mt. 13:33; Lk 13:20-21) communicates a similar message as that of the mustard seed, emphasizing the initial smallness and unimpressiveness of the kingdom compared to what it eventually becomes. Jesus compared the growing of kingdom to the invisible and imperceptible impact of **leaven** in a lump of dough. We can be confident that regardless of any opinions, the kingdom has a glorious future.

가루에 숨겨진 누룩, 효모의 비유는 (마 13:33; 눅 13:20-21)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말해주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에 비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누룩이 반죽 속에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게 있지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유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³³“...*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till it was all leavened.” (Mt. 13:33)*

³³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33)

IX. THE PARABLES OF THE TREASURE AND THE PEARL (MT. 13:44-46)

보화와 진주 비유 (마 13:44-46)

- A. These parables highlight the value of the kingdom and the fact that its value is hidden to many. The kingdom is so valuable that it is worth sacrificing anything for our participation in it. The problem is that its value is hidden. It is not obvious to everybody now, but it will be shortly.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귀함을 말해주며, 이 가치가 많은 이들에게는 가려져 있음을 말해준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귀하기에 우리가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다. 문제는 이것의 가치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가치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⁴⁴“*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ich a man found and hid; and for joy over it he goes and sells all that he has and buys that field. ⁴⁵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seeking beautiful pearls, ⁴⁶who, when he had found one pearl of great price, went and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 (Mt. 13:44-46)*

⁴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⁴⁵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⁴⁶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 B. The treasure and the pearl can speak either of the kingdom or of Jesus, the King of the kingdom.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X. THE PARABLE OF THE DRAGNET (MT. 13:47-50)
그물의 비유 (마 13:47-50)

- A. The kingdom is like a dragnet that gathered both that which was good and bad.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과 못된 것 모두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⁴⁷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dragnet that was cast into the sea and gathered some of every kind, ⁴⁸ which, when it was full, they drew to shore; and...gathered the good into vessels, but threw the bad away. ⁴⁹ So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separate the wicked from among the just, ⁵⁰ and cast them into the furnace of fire...” (Mt. 13:47-50)

⁴⁷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⁴⁸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⁴⁹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⁵⁰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 13:47-50)

- B. This teaches us that many who profess to be a Christian and who associate with the kingdom are not all genuine believers. Both good and evil will continue until the end when both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ir true character. The Lord will remove the wicked in His timing.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진실된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인과 악인 모두는 세상의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있지만, 세상 끝에는 양쪽 모두가 그들의 참된 자아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악인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분의 때에 행하실 일이다.